

## K-철도 우수성, 중남미에 알린다… ODA 협력 강화

- 페루·엘살바도르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(F/S) 지원  
… 한국형 철도기술 전수,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 도모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국제개발협력사업(ODA)과 연계하여 페루,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.
  - \* 공적개발원조(ODA: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
  -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페루,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다.
-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, 사업수행기관\*과 함께 10월 30일 페루 교통통신부, 11월 1일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를 각각 방문하여 ODA 사업착수보고회 및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ROD(Record of Discussion) 체결식에 참석한다.
  - \* 국가철도공단, 도화ENG, 동명기술공단 등
  - 또한, 이스마엘 수토 소토(Ismael Sutta Soto)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, 에드가 로미오 로드리게스 에레라(Edgar Romeo Rodríguez Herrera) 엘살바도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ODA 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. 타당성조사와 연계한 본 사업 추진 협력방안 등도 논의한다.
- 페루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(약 7천억원)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 인프라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, 그간 교통분야 위주의 ODA 협력을 진행해 왔다.

- 특히, 금년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‘페루 친체로 공항철도 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사업(’24~’25, 36억원)’은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인 친체로 신공항 지역과 쿠스코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.
  - 페루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, 페루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우리 정부와 협력하여 ODA 사업을 추진했다.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.
-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우리 기업이 **엘살바도르 최대 국책사업인 ‘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개선사업(3.7억불, CABEI 차관+EDCF 협조융자 재원)’**에 참여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국가이다.
- 올해 협력사업인 **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사업(’24~’25, 16억원)’**은 중남미 다국가가 연결된 태평양 철도사업의 엘살바도로 구간 일부(아카후틀라~산살바도르)를 건설하는 사업이다.
  - ‘21년도 **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**자금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. 엘살바도르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, 재정 보완 등에 있어 **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,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나갈** 계획이다.
  - 특히,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엘살바도르와 **최초로** 진행하는 ODA 사업이다. 이를 계기로, 철도 분야 한국 기업의 **경쟁력과 우수성**을 적극 홍보하고,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나아가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중남미 국가는 메트로, 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, 정부 재정부담 등으로 차관 또는 **민관협력사업(Public Private Partnership, PPP)** 등의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”면서, 수원국의 주요 프로젝트 정보 확보,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**한국의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**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- 아울러, “그간 국토교통 ODA는 수원국의 인프라 계획을 지원하는 한편,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왔다”고 설명하면서,
- “중남미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ODA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	천재민 (044-201-3526)
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사무관	간인숙 (044-201-352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